

#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李壽瓊\* · 宋一炳\*

## A bibliographical research of the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uen』

*Lee Su-kyung\*, Song Il-byung\**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make the writer and the written times of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uen』 clear. Considering the contents of 『DongyiSuse Bowon Sasang ChobonGuen』, it was the manuscripts of 『Dongyi Suse Bowon』. So it was written by Lee Je-ma and it was written when he was in the late of 40s and the beginning of the 50s.

The chapter of 『The origin of human being』 was the manuscript of the 『Dongyi Suse Bowon』 and it had many clues to understand the view points to recognize the human being, and the chapter of 『The herbology and The prescription』 had many drafts of original prescription of 『Dongyi Suse Bowon』. 'Bangang-tang' is the original prescription of 'GyejiBanhaSnggang-tang' of 『Dongyi Suse Bowon』 and 'GumiChyunMunDong-tang' is the original prescription of 'CheongsimYeonja-tang' of 『Dongyi Suse Bowon』. Compared with the 'The pharmacology' of 『Dongyi Suse Bowon』, it showed the order when the pharmacology of each constitution was completed. The pharmacology of Soyangin was completed the early ears of his clinical experience, and secondly that of Taeumin was completed, and that of Soeumin was completed in the end

---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 초 록

### 1. 연구 목적

: '延邊朝鮮族民族醫藥研究會'에서 1984년에 영인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筆寫本은 여러 정황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東武 李濟馬의 글로 추정되며 『東醫壽世保元』 저술 이전의 초기 저작과 같은 글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고는 문헌의 내용을 언급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輯誌學的인 고찰과 문헌 연구의 일환이다.

### 2. 연구 방법

: 문헌 제공자인 孫永錫의 진술 내용과 文獻의 내용을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 『東醫壽世保元』 내용으로 발전 과정과 개념 및 病證藥理의 변화를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동무공의 기타 저술과 비교하여 저술 시기를 추정해 보았다.

### 3. 연구 결과 및 결론

: 이상의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함흥의 崔謙鏞이 소장하던 것을 金九翌이 手抄하여 1984년 筆寫本이 影印되었고 1985년 10월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에서 발간한 『朝醫學』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 부록으로 '四象醫學草本卷'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그 편제에서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이 각 편마다 함축되어 있고 卷之三의 太陽人藥方에서 東武公 자신이 太陽人임과 太陽人의 病證藥理를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 東武公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 「卷之三藥方」에서 『東醫壽世保元』 新定方の 기원이 되는 처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少陰藥方」의 半薑湯은 桂枝半夏生薑湯으로 「太陰藥方」의 九味天門冬湯은 清心蓮子湯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卷之三藥方」을 통해 太小陰陽人의 病證藥理의 성립 과정을 알 수 있으며 少陽人의 病證藥理가 비교적 초기에 완성되고 太陰人 病證藥理가 완성되고 少陰人의 病證藥理는 證治醫學의 처방을 이용하다 비교적 후기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卷之--의 知와 行에 대한 인식은 「性命論」의 사고와는 달리 비교적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格致藥」, 「儒略」과 「反誠箴」의 사고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 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저술 시기는 「東武遺稿」 藥性歌나 39세 亡陰證 치험례 이후이며 저술로 「格致藥」, 「儒略」, 「反誠箴」 저술 전이나 저술 당시로 추정되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이의 저술로 추정된다.

## I. 序 論

1985년 10월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에서 발간한 『朝醫學』의 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는 附錄一 朝鮮族民族醫金九翌先生手抄傳之 「四象醫學草本卷」과 附錄二 朝鮮族民族醫金九翌先生遺著 「四象醫學臨海指南」이라는 문헌을 실고 있다. 『朝醫學』의 前言에서 이 문헌에 대해 龍井縣中醫院 問診部 主任 孫永錫의 제공으로 延邊四象醫學의 先驅者인 金九翌先生手抄로 전하는 글을 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헌은 1984년 7월 28일 延邊朝鮮族民族醫藥研究會에서 영인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筆寫本<sup>1)</sup>을 근간으로 『朝醫學』에서 부록으로 「四象醫學草本卷」이라는 제목으로 활자화하여 발간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李濟馬의 사상의학 형성 자료는 최근 밝혀진 「東武遺稿」<sup>2)</sup>, 東武의 글로 추정되어 전해지는 東武遺稿 藥性歌<sup>3)</sup>, 保命之主<sup>4)</sup>, 甲午板의 篇名<sup>5)</sup> 등이 李濟馬의 체질 병증의 성립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朝醫學』을 접하면서 부록으로

수록된 「四象醫學草本卷」<sup>6)</sup>에 문헌적 매력을 느껴 이 글을 읽던 중 여러 정황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東武 李濟馬의 글이 분명하며 이는 「東醫壽世保元」 저술 이전의 초기 저작과 같은 글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논고를 통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연구를 촉발하여 사상의학의 형성 과정을 밝히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 四象醫學을 이루는 과정과 사상의학의 체계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이 書誌學的인 考察이나 文獻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한의학계에 새로운 시도로 이러한 문헌 연구가 선행된 후에 그 글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연구 풍토가 정착되는 시발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 「東武遺稿」 藥性歌, 保命之主, 甲午板 「東醫壽世保元」의 篇名, 임상서인 「東醫四象新編」<sup>7)</sup> 등의 문헌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고 연구되기를 바란다.

- 1) 이 문헌은 慶熙大學教 四象醫學科 宋一炳이 所藏하고 있는 1984년 影印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를 통해 비교 연구하였다.
- 2) 1996년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東武遺稿」가 밝혀지면서 東武의 自警詩, 기타의 산문, 東武公를 추모하는 글등을 통해 東武公 생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 관련 사고등을 엿볼 수가 있었다.
- 3) 「東武遺稿」의 藥性歌는 洪淳用, 李乙浩 譯述의 「四象醫學原論」과 李泰浩編著의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 근거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東武公의 저술임을 인정하기로 한다.
- 4) 保命之主의 문헌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宋一炳이 李濟馬의 손자인 李鐵胤所藏의 「性命論」, 「四端論」의 東武公 自註 말미에 四端論註와 연결되어 서술된 부분을 필사한 것이라 하나 현재 발굴된 「東武遺稿」의 「四端論」註에는 없다.
- 5) 甲午版 「東醫壽世保元」의 篇名은 宋一炳에 의하면 洪淳用이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
- 6) 이하 원본대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으로 칭하기로 한다.
- 7) 「東醫四象新編」의 處方에는 「東醫壽世保元」에는 없는 처방들도 있으며 이 중 東武의 병증약리와는 상충되는 처방들도 있으나 일부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卷之三 藥方'의 처방들과 일치한다. 이는 뒷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II. 本 論

###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대한 개괄

#### 1) 書名과 文獻의 기원에 대하여

「朝醫學」의 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는 附錄一 朝鮮族民族醫金九翬先生手抄傳之의 書名을 「四象醫學草本卷」으로 출판하였으나 1984년에 影印한 筆寫本의 書名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으로 되어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편제에서도 서명이 각기 다르게 서술되고 있는데 卷之一의 終에는 '東醫壽世保元草本卷'으로 서술하고 卷之二의 시작에서는 '東醫四象壽世保元'으로 쓰는가 하면 卷之二의 終과 卷之三의 藥方에서는 '東醫四象草本卷'이라고 서술하고 있다<sup>8)</sup>. 이것을 「朝醫學」에서는 「四象醫學草本卷」으로 출판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유입 경로는 연변 孫永錫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필사한 金九翬는 安亨來에게 中醫學을 사사 받아 임상하던 중 1936년 함흥에서 「東醫壽

世保元」의 初版本을 출간한 栗洞契의 일인인 崔謙鏞<sup>9)</sup>을 만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草本卷備忘錄」, 「格致藁」등 이 세 가지 서적을 초서로 필사하여 1951년<sup>10)</sup>에 처음으로 正字로 手抄하고 그 이후 두 차례 더 手抄하였다고 한다<sup>11)</sup>. 현재 「朝醫學」의 「四象醫學草本卷」은 1951년에 필사한 것을 근간으로 편제를 수정한 것이다.

#### 2) 편제에 대하여

「朝醫學」의 「四象醫學草本卷」<sup>12)</sup>은 第一卷, 第二卷, 第三卷으로 되어 있다. 第一卷은 第一統부터 第五統까지 구성되며, 第二卷은 第一統, 第二統, 第三統, 戒病人詩, 第四統, 第五統, 第六統으로 구성되고, 第三卷은 第一統부터 第六統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第一統에서 第五統까지를 卷之一으로 구성되어 있고 卷之二는 病變卷之二라 하여 病變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卷之三의 第三統에는 '戒病人詩<sup>13)</sup>'를 포함하고 있다. 卷之三 藥方<sup>14)</sup>에서는 少陽藥方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少陽藥方, 少陰藥方, 太陰藥方, 太陽藥方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sup>15)</sup>. 「東醫壽世保元四象草

8) 書名이 일정하지 않아 東武公의 표현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나 孫永錫에 의하면 東武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한다.

9) 孫永錫의 말을 인용하면 崔謙鏞은 당시 의학자가 아닌 유학자라 한다.

1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끝부분의 白뽕라는 연대는 金九翬이 手抄한 1951년을 지칭하는 것이며 運氣의으로 서술한 연도라고 손영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11) 이상은 孫永錫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12) 「朝醫學」의 「四象醫學草本卷」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名과 編制를 변경하였으며 筆寫本을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오자도 많다.

13) '戒病人詩'의 경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第三統에 포함하고 있으나 「朝醫學」에서는 第三統과 第四統 사이에 서술하고 있다.

14) 이 글에서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藥方의 統의 편제가 일정하지 않아 統의 편제와는 상관없이 藥方의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15) 이 글에서는 초기 手抄本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근간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丑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내용과 유관된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藁」

卷	統	內容	「東醫壽世保元」, 「格致藁」
卷之一	第一統	知行, 人稟臟氣, 人趨心慾, 喜怒哀樂에 의한 臟局 大小 형성 과정	「東醫壽世保元」性命論, 四端論
	第二統	太少陰陽의 性氣, 人事의 能否, 恒心, 情氣	「東醫壽世保元」擴充論
	第三統	情欲의 喜怒哀樂, 四象人의 喜怒哀樂의 조절	「東醫壽世保元」四端論
	第四統	神氣血精(載物), 首腹肱股(行物), 肺脾肝腎(知物), 耳目鼻口(覆物), 太極, 兩儀, 四象	「東醫壽世保元」臟腑論 「格致藁」儒略: 事物, 反誠箴: 太極
	第五統	연령에 따른 攝生, 肺脾肝腎의 설명	「東醫壽世保元」廣濟說, 四端論
卷之二 (病變)	第一統	簡約, 根幹, 警戒, 聞見, 직업에 따른 양생	「東醫壽世保元」廣濟說
	第二統	酒色財權, 命脈, 水穀代謝과정	「東醫壽世保元」廣濟說 醫源論
	第三統	命脈	「東醫壽世保元」病證論
	戒病人詩	病的 개괄	「東醫壽世保元」病證論
	第四統	聖人の 太少陰陽人으로서의 知行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 性命論
	第五統	四焦, 太少陰陽人의 辨證	「東醫壽世保元」臟腑論, 四象人辨證論
	諸六統	運氣病, 太少陰陽人의 病證藥理의 概括	「東醫壽世保元」病證論, 廣濟說
卷之三	少陽藥方	少陽人 藥方	「東醫壽世保元」少陽人藥方
	少陰藥方	少陰人 藥方	「東醫壽世保元」少陰人藥方
	太陰藥方	太陰人 藥方	「東醫壽世保元」太陰人藥方
	太陽藥方	太陽人 藥方	「東醫壽世保元」太陽人藥方
	第五統	太少陰陽人의 脈象, 水穀의 대사, 攝生	「東醫壽世保元」醫源論, 太陽人內觸小腸病論

本卷」의 편제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는 「東醫壽世保元」의 각 편의 내용으로 발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李濟馬의 저술이다.

1) 글의 내용에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卷之三藥方'의 第四統 太陽人藥方에는 '太少陰陽人中 太陽人數原來稀少 故其病證治法見於古方者亦稀少. 反胃症獼猴桃, 小兒脚氣之病五加皮 則古方得者也, 我稟臟自是太陽人 雖終身以經驗 而終不如古人爛高經驗於太陰少陰少

陽三種人病藥之熟審也. 夫藥驗不廣者 病驗不廣故也, 菜果自是補肝之藥 則菜果中肝藥爲多也'라 하여 太陽人의 수는 희소하여 病證과 治法이 古方에 밝혀진 것 역시 희소하여 反胃症에서 獼猴桃를 小兒脚氣病에서 五加皮를 얻었으며 본인이 太陽人이나 경험한 것이 옛 사람이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病藥의 경험에 미치지 못하여 病驗이 많지 않아 藥驗이 넓지 않다고 하며 菜果는 본디 補肝하는 약이 많아 태양인에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인이 태양인이나 병증과 약의 경험이 많지 않음을 언급하고 獼猴桃는 反胃症에 사용하는 것에 근거하여 疝膈에 사용하고, 五加皮는 小兒脚氣에 사용하는 것에 근거하여 解休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양인인 五加皮壯脊湯과 獼猴藤植腸湯의 處方

중 蕎麥, 五加皮, 松節을 제외한 모든 약제가 『東醫寶鑑』 「雜病篇」의 嘔吐門에 사용되는本草이며<sup>16)</sup> 太陽人의 각 약제도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五加皮의 경우 『東醫寶鑑』에서 '味辛苦無毒 補五勞七傷 益氣添精 堅筋骨強志意 男子陰痿 女子陰痒 療腰痛 兩脚疼痺 骨節攣急 痿躄 小兒三歲 不能行服 此使行步'라 한 것을 『東醫壽世保元』에서 '治兩脚疼痺 骨節攣急 痿躄 小兒三歲 不能行 服此 便行走'부분을 인용하여 서술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新方이 古方에 얽매이지 않고 후인 또한 今方에 얽매이는 것이 옳지 않으니 加減의 변통을 하여 그 바름을 구하라<sup>17)</sup>' 하여 태양인의 처방이 많지 않으니 후인이 이에 얽매이지 말고 변통하여 활용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 구절을 통해 태양인 약물 선정의 배경을 알 수 있으며 『東醫壽世保元』 太陽人篇의 내용<sup>18)</sup>과 유사함을 고려할 때 東武 李濟馬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東醫壽世保元』 저술 이전의 체질 병증 약리를 형성해 가는 초고로 볼 수 있다.

## 2) 處方과 藥劑를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의 新定太陰人用藥에는 太陰人病證論에서 언급이 없던 清心蓮子湯이 新定方에 포함되어 있으며 「太陰人肝受熱裡熱病論」 말미 즉, 범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葛根蘿菥子湯을 太陰人表熱證 泄瀉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방 내용에 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sup>19)</sup>. 이와 같이 소음인, 소양인의 병증 방약의 연결과는 달리 태음인 병증 방약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는 『東醫壽世保元』 개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되며 東武公이 1893년에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고 1900년에 그 중 일부인 太陰人諸論까지만 개초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1901년 출판된 초판본에서는 東武가 庚子年에 개초한 性命論에서 太陰人論까지와 甲午年에 저술한 그 이후 부분을 합쳐서 출판하였고 「四象人辨證論」 뒷부분에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윤완중 발간 판본에서는 庚子年에 「醫源論」에서 「太陰人論」까지 改抄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sup>20)</sup>. 「太陰人肝受熱裡熱病」 이후 張仲景傷寒論中 太陰人病經驗設方藥四方,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太陰

- 16) 太陽人 單方이 嘔吐門에 소개되어 있음은 朴性植이 처음으로 주장하였으며 「嘔吐門」 單方이 대부분 미끈한 약제라 삼키기에 좋아 口壹膈에 응용하였을 것이라 주장한다.
- 17) 今茲新方不泥古方, 後人亦不可必泥今方, 加減之妙變通之, 故益求其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太陽人藥方」
- 18) 余稟賦太陽人 嘗得此病 六七年 嘔吐涎沫 數十年 攝身 倖而免天 錄此 以爲太陽人 有病者 戒若 論治法 一言弊曰 遠嗔怒而已矣. 「太陽人內觸小腸病論」
- 19) 葛根蘿菥子湯의 처방 내용은 윤완중 발간의 판본에서만 끝부분에 補遺方이라 하여 舊本 처방들을 싣고 있는 곳에 있다. 이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葛根蘿菥子湯과는 처방내용이 다르다.
- 20) 이는 朴性植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윤완중 판본에서 글의 근거 판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자료를 볼 때 「東醫壽世保元」 發刊 판본 중 출판되어 「醫源論」에서 「太陰人諸論」까지 개초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뒷부분에서 언급이 되지만 「性命論」의 경우는 「東醫壽世保元」에서 비교적 저술 연도를 후기로 잡을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 「性命論」이 개초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저술 연도는 1893년에서 1894년이며 이는 「格致藁」 「反誠箴」 저술 한 해 뒤로 「反誠箴」과 유사한 사고로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性命論」에서의 知行의 誇策 經檢 行檢 度量, 識見 威儀 材幹 方略과 驕於伐尙와 奪侈懶竊에 대한 설명은 「反誠箴」의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차이에 따른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人經驗行用要藥九方, 新定太陰人病應用要藥二十四方은 舊本이라고 서술하고 「太陽人外感腰脊病論」이 하는 舊本이라고 서술하는 것을 보아 太陰人 처방부터는 改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淸心蓮子湯의 설명과 葛根蘿菔子湯의 방제 내용이 빠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두 처방에 대해 살피는 것은 이제마의 초기 처방 운용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淸心蓮子湯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흔히 淸心蓮子湯은 기존의 淸心蓮子飲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하며 表病藥과 裡病藥의 구분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처방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淸心蓮子飲은 蓮子, 人蔘, 黃芪, 赤茯苓, 黃芩, 車前子, 麥門冬, 地骨皮, 甘草로 구성되어 있으나 태음인 淸心蓮子湯은 蓮子肉, 山藥, 天門冬, 麥門冬, 遠志, 石菖蒲, 酸棗仁, 龍眼肉, 栝子仁, 黃芩, 蘿菔子, 甘菊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하게 蓮子肉이 君藥이고 처방의 이름이 비슷하기는 하나 처방의 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므로 기존의 淸心蓮子飲에서 太陰人 淸心蓮子湯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太陰藥方の 九味天門

冬湯은 淸心蓮子湯의 기원 처방으로 볼 수 있다. 九味天門冬湯은 治思慮, 怔忡, 虛弱, 不眠, 遺精, 夢泄等證에 사용하며 天門冬, 麥門冬, 山藥, 遠志, 石菖蒲, 酸棗仁, 元肉, 栝子仁, 甘菊花<sup>21)</sup>各一錢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九味天門冬湯에 蓮子肉, 天門冬, 黃芩이 추가되어 淸心蓮子湯의 처방이 완성되게 된다. 또한 적응증이 治思慮, 怔忡, 虛弱, 不眠, 遺精, 夢泄等證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때 淸心蓮子湯의 기원 처방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少陰藥方」에는 「東醫壽世保元」의 桂枝半夏生薑湯의 기원 처방으로 추정할 수 있는 半薑湯이 있다. 桂枝半夏生薑湯은 治虛寒嘔吐 水結胸에 사용하는 것으로 生薑 三錢 桂枝 半夏 二錢 白灼藥 白朮 陳皮 甘草 各一錢으로 구성되어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半薑湯은 治胸膈痰飲, 唯吐涎沫을 主症으로 하며 半夏, 生薑各三錢의 두가지 약제로 구성되어 있다. 生薑과 半夏를 主藥劑로 사용하며 胸膈痰飲을 主治症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는 桂枝半夏生薑湯의 기원 처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九味天門冬湯과 淸心蓮子湯의 비교

處方	藥劑 內容	主治證 「出典根據」
淸心蓮子飲	蓮子肉 2錢, 赤茯苓, 人蔘, 黃芪 1錢, 黃芩, 車前子炒, 麥門冬, 地骨皮, 甘草 各7分	治心火上炎口乾煩渴小便赤澀 「東醫寶鑑」, 「雜病篇」消渴門
九味天門冬湯	天門冬, 麥門冬, 山藥, 遠志, 石菖蒲, 酸棗仁, 元肉, 栝子仁, 甘菊花各一錢	治思慮, 怔忡, 虛弱, 不眠, 遺精, 夢泄等證.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淸心蓮子湯	蓮子肉, 山藥 2錢, 天門冬, 麥門冬, 遠志, 石菖蒲, 酸棗仁, 龍眼肉, 栝子仁, 黃芩, 蘿菔子 1錢, 甘菊 0.3 錢	治虛勞夢泄無度腹痛泄瀉舌卷中風食滯胸腹痛 「四象新編」

21) 태음인 처방중 淸心蓮子湯에만 甘菊이 들어 있으며 甘菊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半薑湯과 桂枝半夏生薑湯의 비교

處方	處方內容	主治證「出典根據」
半薑湯	半夏, 生薑各三錢	治胸膈痰飲, 唯吐涎沫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桂枝半夏生薑湯	生薑 三錢 桂枝 半夏 二錢 白芍藥 白朮 陳皮 甘草灸 一錢	治虛寒嘔吐 水結胸 『東醫壽世保元』

이와 같이 九味天門冬湯과 半薑湯은 東武公의 病證用藥의 운용 정신과 동일한 것이며 각각 淸心蓮子湯과 桂枝半夏生薑湯의 기원 처방으로 추정된다. 이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 東武公의 저작이며 「東醫壽世保元」, 저술 이전의 초기 저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증거이다.

이 외에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몇몇 처방은 「東醫壽世保元」에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며 몇몇은 「東醫壽世保元」의 新定方으로 변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두 처방이외에 少陽藥方의 甘遂天一丸과 乳香沒藥輕粉丸은 「東醫壽世保元」에 그대로 전해져 사용된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少陽藥方에서 가감법을 많이 설명하고 外感에 사용한다고 한 敗毒散은 「東醫壽世保元」에서 荊防敗毒散으로, 虛勞에 三百貼까지 사용한 六味地黃湯은 荊防地黃湯으로, 益元散은 朱砂益元散으로, 生地黃과 木通만 사용한 導赤散은 荊防導赤散으로 발전하여 少陽人의 新定方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음약방의 補肺生脈湯은 生脈散의 개념으로 태음인 신정방에서 補肺元湯으로, 解熱升陰湯은 熱多寒少湯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九味天門冬湯은 淸心蓮子湯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太陰麻黃湯은 麻黃定喘湯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처방 중 「東

醫四象新編」에 主治症과 처방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는 처방들을 볼 수 있다. 소양약방의 六味地黃湯, 五苓散, 白虎湯, 甘遂天一丸, 乳香沒藥輕粉丸, 防風通聖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陽毒白虎湯, 八味苦參湯, 水火既濟湯, 八味豬苓湯과 太陰藥方의 天門冬潤肺湯, 淸心山藥湯 升麻開腦湯등이 「東醫四象新編」에 그대로 전해진다. 이를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藥方의 處方變化

處方 數	太小陰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太陽人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처방	39	27	13	2
「東醫壽世保元」 처방으로 변화한 처방	6	4	1	
「東醫壽世保元」과 동일한 처방	2			
「東醫四象新編」에 존재하는 처방	11	3	2	
「東醫寶鑑」과 동일한 처방			11	

이와 같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의 처방을 비교하여 태소음양인의 체질 병증약리의 성립 중심으로 살펴 볼 때 卷之三藥方의 소양인 처방은 39方인데 비해 태음인 처방은 27方이며 소음인의 처방은 13方이다. 소양인 처방 중 2가지는 「東醫壽世保元」과 동일한 처방이고 6처방은 「東醫壽世保元」으로 변화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 다른 체질보다 소양인 병증 용약이 초기에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소음인 처방은 11가지가 證治醫學의 「東醫寶鑑」 처방과 동일한 것을 볼 때 소음인의 체질 병증과 약리는 후기에 성립된 것을 볼 수 있다. 소음인



병증약리는 기존 증치의학의 처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임상을 하다 한계를 느껴 소음인 특유의 病證과 新定方을 후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양인 처방이 비교적 초기에 성립되고 소음인의 처방은 상대적으로 늦게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체질 병증약리에서 소양인 병증약리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성립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소음인 병증약리는 후기에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卷之三 藥方을 통해 동무의 초기 약물 사용례를 살펴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少陽藥方에는 少陽人에게 甘草를 引經藥으로 사용하는 등<sup>22)</sup> 少陽人의 病證藥理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少陰藥方에서는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泛論의 海鹽, 鐵液水, 金蛇酒 등의 單味에 대한 적응증을 언급하고 있어 이들 치험례는 비교적 일찍 이루어진 경험임을 알 수 있다<sup>23)</sup>.

태음인 약리는 「東武遺稿」 藥性歌에서 진일보하여 解熱升陰湯에서 葛根을 君藥으로 사용하는 등 藥性歌 저술 당시보다 태음인 병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竹瀝을 藥性歌

에서와 같이 「少陽藥方」의 六味地黃湯에서 사용하며 貝母도 「少陽藥方」의 腰將軍湯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 熊膽을 태음인 外感에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초기 경험이었으며 鹿茸이 소음인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고 태음인에게는 鹿血을 사용하는 것은 「東醫壽世保元」의 내용과는 다르다. 또한 「少陽藥方」의 六味地黃湯에서는 태음인 약제인 山藥을 빼고 枸杞子를 넣어 사용하나 腰將軍湯에서는 山藥을 넣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山藥은 肺藥이라고 언급할 뿐 山藥을 枸杞子로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으나 「東醫四象新編」에서는 山藥을 枸杞子로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太陽藥方에서 獼猴桃는 反胃에서, 五加皮는 小兒脚氣에서 사용례를 얻었음을 설명하여 태양인 병증약리에 대한 기원을 알 수 있다.

### 3) 서술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용어의 확립은 사고의 정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은 동일한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도로 정제된 언어들로 저술되어져 있으나<sup>24)</sup> 「東醫壽

22) 敗毒散과 益元散에서 甘草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3) 茵陳, 黃疸治. 苦楝皮 : 治蛔蟲. 益母草 : 治虛勞者. 蘇木, 紅花 : 治療血. 玄胡索, 海粉 : 治積塊. 甘薯(土豆), 鹽液 : 治浮腫. 糯米甘薯糖液治浮腫. 米糖治眩暈. 鐵液水 : 治四肢不仁. 項赤蛇, 金蛇酒治口臭燥渴. 狗肉湯治瘰癧.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少陰藥方

24) 물론 「東醫壽世保元」내에서도 저술의 선후를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四端論」은 「東醫壽世保元」내에서 비교적 초기 저술임을 알 수 있다. 저술 시기와 관련해서는 庚子年 「東醫壽世保元」 개초한 부위를 박성식이 주장한 초판본에서는 「性命論」에서 「太陰人諸論」까지 수정하였다고 서술하고 尹完重 臚本의 판본에서는 「醫源論」에서 「太陰人諸論」까지 수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윤완중판본에서 新本, 舊本, 印本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때 Scholarship이 있게 정확히 서술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性命論」의 내용을 살펴 볼 때는 「反誠箴」의 저술 연대와 비슷한 舊本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世保元四象草本卷」의 용어는 일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정제되기 이전의 언어들 사용된다. 이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사고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사고 체계가 「東醫壽世保元」의 체계로 발전하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卷之一」 「第一統」에서 肺脾肝腎의 知와 行을 서술하면서 知에는 事務, 交遇, 黨與, 居處의 人事의 요소를 行에는 籌策, 謀猷, 材幹, 便宜를 배속한다<sup>25)</sup>. 이는 「東醫壽世保元」에서 知行을 인체의 前後에서 주관하고 知에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을 行에는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을 배속하는 것<sup>26)</sup>과 달리 肺脾肝腎에서 知行을 주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第二統」에서 四象人의 性氣를 언급하면서 聞見, 威儀, 制度, 度量과 知慧, 行檢, 經綸, 功績의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太小陰陽人의 肺脾肝腎의 學問思辨 능력을 통해 進靜學處의 性氣가 知行의 요소에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고 賢者, 知者, 能者, 良者로 나누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27)</sup>. 이 구절에서 知行의 요소를 聞見, 威儀, 制

度, 度量과 知慧, 行檢, 經綸, 功績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에서 知行의 요소인 籌策, 經綸, 行檢, 度量과,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의 이전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知行의 요소에 대해 동일한 용어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四焦 부위에서도 용어 변화를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卷之二의 第五統에서는 '肺部가 盛하면 肩背가 暢하며 脾部가 盛하면 胸膈이 通하며, 肝部가 盛하면 兩脇이 張하며 腎部가 盛하면 腰腸이 雄한다<sup>28)</sup>'하여 肺부위는 肩背로, 脾부위는 胸膈으로, 肝부위는 兩脇으로, 腎部는 腰腸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肺부위는 在頤下背上으로 脾부위는 在膈로 肝부위는 在腰로 腎부위는 在腰脊下로 설명하는 四焦<sup>29)</sup>의 기본 인식 배경이다. 肩背, 胸膈, 兩脇, 腰腸은 사초 부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의 喜怒哀樂의 情이 肺脾肝腎 부위인 背頤, 胸膈, 腰脇, 脊曲을 손상하는 문장<sup>30)</sup>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도

- 
- 25) 肺知事務, 脾知交遇, 肝知黨與, 腎知居處. 肺行籌策, 脾行謀猷, 肝行材幹, 腎行便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 26)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頤有籌策 膈有經綸 膺有行檢 腹有度量.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腎有方略.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 27) 是故, 太陽之學者, 因其自然之性氣而敏於進而不苟於退, 故聞見日博而智賢慧日密也, 賢者也. 太陰之思者, 因其自然之性氣而安於靜而不妄於動, 故威儀日慎而行檢日成也, 知者也. 少陽之問者, 因其自然之性氣而堪於舉而不怠於措, 故制度日審而經綸日足也, 能者也. 少陰之辨者, 因其自然之性氣而重於處而不輕於出, 故度量日明而功績日至也, 良者也.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卷之一」 「第二統」
- 28) 肺部盛則肩背暢, 脾部盛則胸膈通, 肝部盛則兩脇張, 腎部盛則腰腸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卷之二」 「第五統」
- 29) 肺部位 在頤下背上 胃腕部位 在頤下胸上故 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膈 胃部位 在膈故 腎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膈故 腰膈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膈腹下故 脊下膈下以下 謂之下焦.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 30) 이는 喜怒哀樂의 性과 情중 情으로 인해 傷하는 바이다.

〈丑 5〉「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의 肺脾肝腎 部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肺部	肩背	背下背上
脾部	胸膈	膂
肝部	兩脇	腰
腎部	腰腸	腰脊下

찾아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怒情으로 肝부위 腰脊이 손상을 받고 喜情으로 脾부위 胸膈이 손상을 받고 哀情으로 腎부위 脊曲이 손상을 받고 樂情으로 肺부위 背佳가 손상을 받는다<sup>31)</sup>' 하였으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怒로 兩脇이 暴盛暴衰하여 肝血이 상하고 喜로 胸重이 暴闊暴窄하여 脾氣가 상하고 哀로 膂脊이 暴伸暴屈하여 腎精이 상하고 樂으로 肩臂가 暴揚暴抑하여 肺神이 상한다<sup>32)</sup>'고 하였다<sup>33)</sup>.

이 두 구절을 통해 李濟馬가 제시한 四焦部位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背下背上의 上焦는 肩背, 肩臂에 해당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兩脇은 腰脊으로, 胸重은 胸膈으로, 膂脊은 脊曲으로, 肩臂는 背佳로 발전하였다. 이외의 여러 부분에서 「東醫壽世保元」에서 서술하는 여러 부분의 문

장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근간이 되는 문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

〈丑 6〉「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서 喜怒哀樂情之所傷

情之所傷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怒	怒情→兩脇→肝血	怒→腰脇(肝)
喜	喜情→胸重→脾氣	喜→胸膈(脾)
哀	哀情→膂脊→腎精	哀→脊曲(腎)
樂	樂情→肩臂→肺神	樂→背佳(肺)

4) 인물의 사상인 평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卷之二病變」의 第四統에서는 經書속의 인물과 歷史 속의 인물들을 그가 행한 知와 行으로 太少陰陽人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는 인물을 직접 보지 않고 그가 남긴 행적이거나 말등을 통해 각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박학한 경서에 대한 지식과 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識見을 소지한 자이어야 가능하며 더구나 각 인물의 體形氣像과 容貌詞氣등에 의한 形과 象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물의 知行을 통해 太少陰陽人의 象을 구현해 내는 것

- 31) 頻起怒而頻伏怒 則腰脇 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迫蕩不定 則肝其不傷乎 乍發喜而乍收喜 則胸膈 乍闊而乍狹也 胸膈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膈闊狹不定 則脾其不傷乎 忽動哀而忽止哀 則脊曲 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屈伸不定 則腎其不傷乎 屢得樂而屢失樂 則背佳 屢暴揚而屢暴抑也 背佳者 肺之所住着處也 背佳 屢抑揚不定 則肺其不傷乎.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 32) 頻起怒而頻伏怒則, 兩脇暴盛而暴衰也. 兩脇暴盛而暴衰則, 肝血傷也. 乍發喜而乍收喜則, 胸重暴闊而暴窄也. 胸重暴闊而暴窄則, 脾氣傷也. 忽動哀而忽止哀則, 膂脊暴伸而暴屈也. 膂脊暴伸而暴屈則, 腎精傷也. 屢得樂而屢失樂則, 肩臂暴揚而暴抑也. 肩臂暴揚而暴抑則, 肺神傷也.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卷之一」 「第三統」
- 33)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肺脾肝腎이 傷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肺神, 脾氣, 肝血, 腎精으로 傷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

은 太少陰陽人을 제창한 李濟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東武는 孔子의 周遍立於道는 立於身으로 太陽之象이며 曾子의 治平明於德는 明於心<sup>34)</sup>로 少陰之象이며 孟子의 雄辯言於善은 善於事으로 太陰之象이며 子思의 中庸行而誠은 誠於物로 少陽之象으로 설명하며 태소음양인을 구분하고 그 외 우임금은 태음의 품부를, 순임금은 소양의 품부를, 이태백은 태양의 품부를, 안회는 소음의 품부를 지남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知行을 통해 太少陰陽人의 象을 구현해 내는 것은 東武公만이 가능한 것이다<sup>35)</sup>.

### 5) 白兔와 魯山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말미에 '白兔十一月六月 題于魯山'은 문헌의 저자와 저술 연도에 대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魯山은 金九翬의 호이며 白兔는 辛卯年을 지칭하는 것으로 1951년에 해당된다. 孫永錫의 말을 인용하면 金九翬이 1936년에 崔謙鏞을 함흥에서 만나 그를 통해 『格致藁』,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草本卷備忘錄』을 보고 필사한 것을 51년에 처음으로 手抄하고 이후 두 차례 더 手抄하였으며 이 중 『朝醫學』의 『四象醫學草本卷』은 51년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 3. 저술 시기의 추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 東武公의 저술이라면 『格致藁』,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등과 비교하여 저술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저술 시기는 『東醫壽世保元』의 저술 이전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甲午版으로는 볼 수는 없다. 비록 口傳하는 것이기는 하나 甲午版 病證論의 外感, 內觸의 篇名과는 다르며<sup>36)</sup> 현존하는 『東醫壽世保元』의 太陰人處方과 太陽人病證論이 甲午版의 내용임을 근거할 때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甲午版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甲午版 『東醫壽世保元』저술 이전 즉, 1893년 57세에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기 이전의 글로 추정할 수 있다.

#### 1) 처방과 약제를 중심으로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에 1875년 亡陰證에 六味地黃湯을 투여하는 동무의 임상례를 통해 소양인이 腎弱하다는 판단하에 腎弱을 도울 수 있는 대표적 처방인 六味地黃湯으로 소양인 병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약제 사용을 장부 대소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東武遺稿』의 藥性歌<sup>37)</sup>로 전해지고 있는 자료에서

34) 『朝醫學』에서는 '明於治'로 되어 있으나 明於心이 타당하다.

35) 孔子稟太陽, 大禹孟子稟太陰, 帝舜子思稟少陽, 帝堯曾子稟少陰, 漢太祖稟太陰, 唐太宗稟少陽, 漢光武稟少陰, 范蠡稟太陰, 管仲稟少陽, 安瞿稟少陰, 黃石公稟太陽, 司馬遷荊稟太陰, 太公孫武稟少陽, 諸葛亮吳起稟少陰, 李太白稟太陽, 司馬遷杜甫稟太陰, 賈誼李長吉蘇軾稟少陽, 班固王谷韓退之稟少陰, 王羲之稟太陰, 柳公權稟少陽. 夫子之周遍立於道也, 立於道者立於身也, 太陽之象也. 曾子之治平明於德也, 明於德者明於治也, 少陰之象也. 孟子之雄辯言於善也, 善也者善於事也, 太陰之象也. 子思之中庸行而誠也, 誠也者誠於物也, 少陽之象也. 『病變之第四統』

36) 甲午版의 表裏病證의 篇名은 宋-炳에 의하면 故 洪淳用을 통해 알려졌다고 한다.

37) 『東武遺稿』의 藥性歌라고 전해지는 자료는 현재 발굴된 『東武遺稿』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洪淳用, 李乙浩 譯述의 『四象醫學原論』과 李泰浩編著의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도 확인할 수 있다. 藥性歌에서는 체질 약물을 소한 臟腑에 기능하는 약물들로 설명하며 소음인은 人蔘, 白朮, 炙甘草, 當歸, 川芎, 官桂가 주 약제이며 少陽人은 熟地黃, 山茱萸, 茯苓, 知母, 澤瀉, 木通등이 주 약제이다. 특히 소양인 약제는 六味地黃湯의 주성분과 거의 일치하며 이는 亡陰證에 六味地黃湯을 사용하는 39세대의 임상례와 저술 연대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藥性歌의 태음인 주 약제는 麥門冬, 五味子, 砂糖, 山藥, 桔梗, 牛黃등이다. 그러나 固肺立肺의 기능을 가진 砂糖은 『東醫壽世保元』 태음인 처방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藥性歌 약제들로 태음인의 表病은 설명 가능하나 裡病 설명이 불가능하다. 태음인 裡病은 葛根이 主藥이나 『東武遺稿』 藥性歌에서는 葛根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藥性歌 저술 당시 태음인 병증약리가 비교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태음 약방에서는 葛根을 君藥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 東武遺稿 藥性歌 이후에 저술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즉, 39세 육미지황탕 임상례 이후의 저술이며 40대 이후와 57세 전으로 추정된다.

## 2) 知行을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이론편에 해당하는 「卷之一」의 내용은 서술 용어에서 太少陰陽人의 人事의 能否, 人趨心慾의 鄙薄食懶之心, 人稟臟理인 臟腑 強弱, 「廣濟設」의 내용, 太少陰陽人의 知行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知行의 요소로 설명되는 頤臆臍腹의

籌策, 經綸, 行檢, 度量과 頭肩腰臀의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은 여러 가지 용어로 표시되고 있다.

이는 「格致藁」 「儒略」과 「反誠箴」에서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의 심육과 知行의 요소들이 서술되는 용어와도 곳곳에서 일치하며 동일한 계통성을 갖지 못하는 것과는 일치한다. 「格致藁」에서의 지행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格致藁」에서는 「天勢」에서 '作處誠信積成度量 行檢正直積成涯岸 器率默通積成規模 權變周察積成聞見'라고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作處, 行檢, 器率, 權變는 人事의 居處, 黨與, 交遇, 事務 이전 개념이며 度量, 涯岸, 規模, 聞見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格致藁」 「反誠箴」의 「太極」에서 知行은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位 所以形於左也'라 하며 離震은 '知行在我 我在左也'라 하며 知行에 대해 언급함을 서술하고 있다. 「離震箴」에서 耳目鼻口, 肺脾肝腎, 腸胃胞子, 四肢百骸를 언급하고 이것은 言心體力으로 대표되며 舒卷隱見, 升降俯仰, 出入往來, 屈伸收放으로 기능함을 언급하면서 愛人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知는 天下衆人의 心同으로 무릇 好善을 위로 하고 惡惡을 아래로 하는 것이고 行은 天下衆人의 身同으로 무릇 惡惡을 멀리하고 好善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8)</sup>. 「離震下」에서 耳目鼻口, 四肢百骸, 肺脾肝腎, 腸胃胞子를 각기 行於天, 行於人, 行於性, 行於命하는 것으로 언급하면서, 耳目鼻口의 人心은 順天하며, 四肢百骸의 道心은 信人하며, 肺脾肝腎의 理心은 順天而中하니 知로, 腸胃胞子の 敬心은 信人而正하니 行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知行을 위해 學問思辨할 것을 강조하였다. 「性命論」의 知行 구조

38) 天下衆人之心同 是知也 而學皆好上而惡下 天下衆人之身同 是行也 而學皆惡遠好近 「格致藁」 「反誠箴」 「離震下載」

와는 다르며 耳目鼻口의 聽視臭味의 능력에 의한 驕矜伐夸를 언급하고<sup>39)</sup> 頤臆臍腹에 眞氣血液을 배속하여 知勇清優로 표현<sup>40)</sup>하기도 한다.

<표 7> 「離箴」의 知行

「離箴」		「離箴下載」				
舒卷隱見	言	耳目鼻口	行於天	失於欲	人心	順天
升降俯仰	心	肺脾肝腎	行於人	得於理	理心	順天而中
出入往來	體	腸胃胞子	行於性	失於怠	敬心	信人而正
屈伸收放	力	四肢百骸	行於命	得於敬	道心	信人

「箴箴」에서는 지행의 요소로 籌策, 雄武, 儀範, 材力과 言語 蘊抱 容止 勤勞에 대해 언급하는데 天下의 籌策, 世間的 雄武, 人倫의 儀範, 疆域의 材力을 언급하며 人席의 言語, 人襟의 蘊抱, 人堂의 容止, 人所의 勤勞를 설명한다. 이는 「性命論」의 天機와 人事의 이전 개념과 지행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지행은 「格致叢」에서와 같이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의 심육과 知行의 요소들이 서술되는 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함역제복과 두견요둔의 계통성을 갖지 못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儒略」의 저술을 53세에 교정하여 54세에 완

<표 8> 「震箴」의 天機, 人事의 요소와 知行

「反誠箴」 震箴	天下	籌策	世間	雄武	人倫	儀範	疆域	材力	衆
「性命論」	天時		世會		人倫		地方		
	意	知	心	勇	身	清	力	優	
「反誠箴」 震箴	人席	言語	人襟	蘊抱	人堂	容止	人所	勤勞	簡
「性命論」	事務		交遇		黨與		居處		

성하고 「反誠箴」의 저술을 56세에 시작하여 57세에 교정한 것에 근거하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도 「儒略」과 「反誠箴」 저술 전이나 저술당시 즉, 東武公의 50대 초반 혹은 50대 전후의 사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卷之一과 卷之二의 知行 인식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지행보다는 「儒略」과 「反誠箴」의 사고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저술은 「東武遺稿」 藥性歌의 저술 이후이며 「儒略」과 「反誠箴」 저술 전이나 혹은 저술 당시쯤으로 추정되어 東武公 50세 전후나 50세 초기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結 論

이상에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 東武公의

39) 耳之聲 愚於達人之總則 必慕達人之驕 目之色 怯於大吏之統則 必慕大吏之矜 鼻違嗅 濁於豪士之帥則 必慕豪士之伐 口之味 劣於酋長之管則 必慕酋長之夸

40) 頤之眞 合於達人之意則 必得達人之知 臆之氣 合於大吏之廬則 必得大吏之勇 臍之血 合於豪士之趣則 必得豪士之清 腹之腋 合於酋長之志則 必得酋長之優

『東醫壽世保元』 저술 이전의 초고임을 밝혀 사상 의학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인식이 『東醫壽世保元』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 四象醫學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여 東武公의 인간학이 의학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 四象人의 병증약리를 더욱 정확히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함흥의 崔謙黴이 소장하던 것을 金九翬이 手抄하여 1984년 筆寫本이 影印되었고 1985년 10월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에서 발간한 『朝醫學』 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 부록으로 '四象醫學草本卷'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그 편제에서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이 각 편마다 함축되어 있고 卷之三의 太陽人藥方에서 東武公 자신이 太陽人임과 太陽人의 病證藥理를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 東武公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卷之三藥方』에서 『東醫壽世保元』 新定方の 기원이 되는 처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少陰藥方』의 半薑湯은 桂枝半夏生薑湯으로 『太陰藥方』의 九味天門冬湯은 淸心蓮子湯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4. 『卷之三藥方』을 통해 太小陰陽人의 病證藥理의 성립 과정을 알 수 있으며 少陽人의 病證藥理가 비교적 초기에 완성되고 太陰人 病證藥理가 완성되고 少陰人의 病證藥理는 證治醫學의 처방을 이용하다 비교적 후기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卷之一의 知와 行에 대한 인식은 「性命論」의 사고와는 달리 비교적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格致藥』, 『儒略』과 『反誠箴』의 사고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저술 시기는 『東武遺稿』 藥性歌나 39세 亡陰證 치험레이 후 저술로 『格致藥』, 『儒略』, 『反誠箴』 저술 전이나 저술 당시로 추정되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이의 저술로 추정된다.

## 참 고 문 헌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 1984년
2. 朝醫學, 第一冊 四象醫學論,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 1985년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1901년, 초판본 영인본
4. 李濟馬, 嘔吐完譯 東醫壽世保元, 1963년, 윤완중 발간
5. 李濟馬, 格致藥, 덕흥인쇄소, 소화15년(1940년), 한두정발행
6. 李濟馬, 東武遺稿, 정신문화연구원 소장
7.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한림원, 1990년
8. 洪淳用, 李乙浩 譯述,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94년
9. 李泰浩編著, 東醫四象診療醫典, 행림출판, 1972년
10. 박성식, 동의수세보원 사상인 표리병증 편명에 대한 소고, 사상의학회지, Vol.6. No.1, 1994